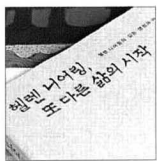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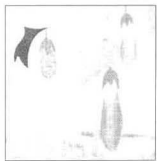




말이... 없는... 날들은...

책에서... 책으로... 이어지고...



'No Voice Day!' 지난해 말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악 FM 개국 몇 주년인가를 기념해 특별히 마련한 행사(?)의 제목이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말이 나오던 라디오에서 사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계속 음악만 나오는데, 참으로 좋았고 신기했다. 7년 동안 라디오 방송에서 아나운서로 일했던 나는 한때 말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헤맨 적이 있다. 글자를 시각장애인인 읽을 수 있는 점자로 번역하는 점역點譯을 배우기도 했고,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해도 되는 이런 저런 강좌를 기웃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뭐니뭐니 해도 그 중 최고는 책읽기였다. 누구에게 새로 배울 일도 없고 일부러 시간을 내 일정한 장소를 찾아갈 필요조차 없는, 말 한마디 없이 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책을 읽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과 말로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이 참 싫었다. 읽은 책을 그저 혼자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더 좋았다. 일년 내내 지니고 다니는 수첩 맨 뒤쪽에 읽은 책을 순서대로 적어 놓는 것이 전부였고, 간직하고 싶은 구절들은 처음에는 노트에 나중에는 컴퓨터 구석방에 '독서 메모'라는 이름을 달고 암전히 숨어들었다. 덕분에 같은 크기 같은 모양에 색깔만 다른, 지나간 수첩 속에서 지은이들의 이름과 제목으로 다시 살아나는 책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컴퓨터 '독서 메모' 방에서 책을 읽을 당시 내 가슴을 쿵쿵 울려대던 문장들을 무심한 듯 죽 살펴보는 것이 나만의 은밀한 즐거움이 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수첩을 뒤져 소노 아야코의 《중년 이후》를 다시 읽는다. 세상에 나이 먹는 일만큼 공평하고 정직한 것이 또 있을까. 한 살 더 먹었다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시절을 지나왔나 싶고, 40대와 50대의 딱 중간에 이른 나이를 새삼 헤아려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역시 나이가 주는 만만치 않은 무게 탓이리라. '중년中年' 하면 사전의 풀이도 그렇고 보통 마흔 살 안팎의 나이를 생각하는데, 소노 아야코는 그 시작을 삼십대 중반부터로 잡은 것이 우선 눈에 띈다. 삼십대 중반인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다고 하면 아마도 그리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이

《중년 이후》 소노 아야코 지음 | 오경순 옮김 | 리수 | 247쪽 | 값 8,500원
 《헬렌 너어링, 또 다른 삶의 시작》 엘렌 라콘테 지음 | 황의방 옮김 | 두레 | 195쪽 | 값 8,000원



전생에 태양신을 받드는 여사제였는지 알 수 없고.....완벽한 여성의 형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만.....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지닌 채.....
91년이라는.....긴 인생을 좋은 삶.....조화로운 삶에 비쳤기에.....
헬렌 니어링이 아니겠는가.

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삼십대 중반부터 오십대까지를 중년으로 놓은 소노 아야코는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면서 인생이 무르익어 간다고 이야기한다. 이쯤에서부터 벌써 나는 '맞습니다! 맞고요...'를 속으로 외치기 시작한다. 나이 들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얻은 것 두 가지는, 세상일과 인간사 모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깨달음과 그래도 조금씩 더해지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니까.

소노 아야코가 쓴 또 한 권의 책이 생각나 뒤져보니 1990년 수첩에 적혀 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계로록戒老錄). 책꽂이 저안쪽에서 꺼내보니 뒷표지에 노년을 위한 지침서, 젊은이들의 필독서로 소개하고 있다. 1990년이면 노년 관련 책이라고는 노인복지론 같은 대학교재와 학위논문 그리고 폴 투르니에의 책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노년을 위한 지침서이며 젊은이들의 필독서라고 밝히고 있는 데다가, 본문 사이사이에 '나의 의견'이란 제목이 붙은 빈칸을 곳곳에 배치해 독자가 직접 메모하도록 한 것을 보면서 당시의 책 기획자를 떠올려 본다. 그는 그때 어떻게 노년 책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노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실버출판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게 될 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14년이 흐른 지금 노년 관련 책들이 쏟아지다시피 나오고 있어 내 방의 작은 책꽂이에도 노년 관련 책들만 따로 모아놓을 정도지만, 지침이 되며 그래서 꼭 읽어야 할 책은 유감스럽게도 그리 많지 않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저자의 출생년도와 책 발간년도를 맞추어 보니, 1931년에 태어난 소노 아야코가 《중년 이후》를 쓴 것은 68세였던 1999년이었고,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를 쓴 것은 41세 때인 1972년이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 중년의 나이에 노년 이야기를 쓰고, 60대 후반 노년기에 중년 이야기를 쓴 셈이다. 사람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풍성할까,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뛰어난 통찰력만 지니고 있다면 경험 못지않은 예지

를 발휘할 수 있는 걸까. 40대 작가의 통찰력으로 꿰뚫어 본 노년과 60대에 이르러 지나온 시절의 체험을 녹여 기록한 중년, 정말 어느 쪽이 더 나을까. 나이가 갖는 깊이가 있고 경험이 갖는 폭이 있을 것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있기에 인생의 모퉁이마다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앞길을 비춰주는 신호등 불빛을 발견하는 것이리라.

《중년 이후》에서 중년에 이르러 경험하는 체력지수의 하락과 정신지수의 상승을 말하며 소노 아야코는, 중년은 용서의 시기이기에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물려설 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것과 남은 인생 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며 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조용한 목소리로 설득하고 있다. 한편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에서는 노년기에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생활수칙들을 지나칠 만큼 상세하게 조목조목 짚어나가고 있다.

소노 아야코가 40대에 중년 이야기를 쓰고, 60대 후반에 노년 이야기를 썼다면 좀 달랐을까? 아니, 그랬다면 오히려 재미없을까? 독자의 처지에서는 《중년 이후》든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든 읽는 순서는 상관이 없겠다. 인생의 길에서 누구나 꼭 지나야 할 역驛들이라면 순서대로 가는 것도, 거꾸로 가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보면 중년이란, 중년역驛을 지나면 노년과 죽음의 역驛이 곧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존재,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 길의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중년과 죽음은 노년을 가운데 놓았을 때 앞과 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다. 나는 죽음과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토론하는 '삶과 죽음 독서 모임'에 속해 있는데, 지난 번 모임에서는 약물투여 등 의료행위가 개입되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통해 자연상태로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극적인 안락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문득 100세 되던 해에 스스로 음식물을 끊어 자유의지로 세상을 떠난 스코트

니어링을 떠올렸고, 자연스레 헬렌 니어링으로까지 생각이 옮겨갔다. 헬렌 니어링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죽음을 맞이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지만 그 방법은 달라서, 91세 되던 해에 갑작스런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헬렌 니어링의 노년기와 말년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친구 엘렌 라콘테가 쓴 《헬렌 니어링, 또 다른 삶의 시작 On light alone.》은 좋은 죽음으로 좋은 삶을 완성한 한 사람의 노년의 모습을 통해 내 삶의 앞길을 헤아려 보게 만드는 책이다.

그러나 중간에 헬렌 니어링이 전생애 태양신을 받드는 여사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나, 헬렌이 거의 완벽한 인간의 여성형질을 타고났다는 대목을 읽을 때면 솔직히 좀 황당하고 씁쓸하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존재라면, 그의 단순소박한 '좋은 삶(Good Life)'은 영영 다가갈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나이에 비해 좋은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었다고는 해도, 헬렌 니어링 역시 늙어감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너무도 인간적인 노년의 징표들을 내보인다. 백내장 수술로 시력이 나빠지고, 피부에는 검버섯이 생겨나고, 청력의 약화로 전화벨 소리와 음악을 듣기가 어려워지고, 목소리 구분도 어려워지면서 기억력은 감퇴한다. 그리고 후각과 미각, 치아의 상실도 여지없이 뒤따른다. 헬렌 니어링의 표현대로 이승의 육신이란 '가련하고 늙은 몸' 일 수밖에 없었다.

전생애 태양신을 받드는 여사제였는지 알 수 없고 완벽한 여성의 형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지닌 채 91년이라는 긴 인생을 좋은 삶, 조화로운 삶에 바쳤기에 헬렌 니어링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겪는 노년의 징후 하나 없이 건강하게만 살다 갔으면 어찌 우리 가슴에 온전히 다가올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앞서 말한 대로 노년이란 얼마나 공평하며 또 얼마나 정직한 것인지.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인생 길에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누구나 늙는다는 것과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다. 새해가 되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똑같이 나눠 가진 한 살이 내 안에 모이고 쌓여 노년으로 한 걸음 또 나아가간다. 인생의 가장 큰 이 원칙을 배운다면 올 한 해도 꽤 괜찮은 한 해



가 되지 않을지. 그런데 그것은 꼭 말로 전해지고 말로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나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이 바로 노년 이해의 첫걸음이다. 'No Voice Day'는 라디오 방송에만이 아니라 바로 노년 이해에도 필요한 것. 말이 없는 날들은 오늘도 책에서 책으로 이어진다. **유경**

이 글을 쓴 유경은 196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시청각교육과를 졸업했으며 7년간 CBS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노인 방송을 통해 노년의 삶을 보기 시작했다. 이후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노인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석〉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과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어르신사랑연구모임(<http://cafe.daum.net/gerontology>)'을 운영하며 노인대학과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중이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여성 신문에 〈유경의 녹색 노년〉을 연재하고 있으며, 같은 제목으로 SBS 라디오 마음은 언제나 청춘, 마산 MBC-FM 가요응접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꽃진 저나 무푸르기도 하여라》(서해문집, 2003)가 있다.